

#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칠곡군을 중심으로

윤령인(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 · 김정옥(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증적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 연구 방법

연구대상은 경북 칠곡군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 1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11년 09월 5일부터 2011년 09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19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일원분산분석,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 연구 결과

첫째,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80점이었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남편연령, 아내학력, 결혼기간, 남편직업, 결혼경로, 남편의 아내 모국어 수준의 변인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결혼이민자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6점으로 하위요인별로는 ‘전반적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M=3.44), ‘부부의 사회·심리적 동질감’(M=3.35), ‘부부관계의 불만요인’(M=3.17), ‘부부관계의 합리적 태도’(M=3.15), ‘결혼생활의 애로요인’(M=3.14), ‘결혼생활에 대한 인지’(M=3.07) 순이었다. 아내학력, 남편학력, 결혼기간, 아내직업, 남편의 아내 모국어 수준의 변인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분석결과,  $r=.383$ 으로  $p<.001$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의 하위요인별 관계는 ‘전반적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r=.473$ ), ‘부부의 사회·심리적 동질감’( $r=.416$ ), ‘결혼생활의 애로요인’( $r=.485$ )과는  $p<.001$  수준에서, ‘부부관계의 불만요인’( $r=.250$ )과는  $p<.05$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부관계의 합리적 태도’와 ‘결혼생활에 대한 인지’의 요인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한국어 수준 및 남편의 아내 모국어 수준이 그들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한국어 수준 및 남편의 아내 모국어 수준을 독립변수로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R^2=.213$ )을 실시한 결과, ‘남편의 아내 모국어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남편이 아내 모국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결혼에 대한 만족도는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